

너를 춤추게 하고
나는 숨을 쉰다

“광주가 도시공간·시민 삶에 새 문화 지도 그려주길”



‘바람이 분다’

정희남 담양 대담미술관장 개인전
은암미술관 20일까지 ‘바람이 분다’

미술관에 바람이 불어온다. 들풀이 흔들린다. 날리는 눈발과 함께 푸른 대나무 잎사귀가 춤을 춘다. 떨어진 꽃잎이 휘날리면서 다시 꽃으로 피어난다.

은암미술관은 14일부터 20일까지 서양화가인 광주교육대 정희남(담양 대담미술관 관장) 교수를 초대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정 교수가 5년 만에 여는 14번째 개인전이다.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 터치, 두터운 마티에르 효과 등으로 개성 넘치는 표현주의 화풍을 선보여온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바람이 분다’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과 그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붓으로 표현, 사진 그 이상을 느끼게 선사한다.

작가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바람의 움직임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을 작품으로 옮겼다. 바람은 그 자체로서는 형체가 없지만 다양한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린다.

흘러가는 구름, 흔들리는 들풀, 출렁이는 물결,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또 바람을 만난 대상들은 하나하나가 생동하며 강한 흡인력과 깊은 호소력을 발휘한다.

전시장 바닥에는 낙엽과 갈대다 가득하다. 그 사이에서 바람과 가을을 느끼게 된다. 작가는 계절이 가면서 낙엽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다른 쪽을 둘러보면 화사하게 피어난 꽃, 푸르름을 간직한 대나무가 시선을 잡아끌면서 가을이 가는 것은 또 다른 봄을 예고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정 교수는 “관람객들이 봄을 여는 가을, 새벽을 여는 바람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단순한 전시회보다는 그림과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

문화의 달 '95+95 청년문화기획자대회' 준비 정민룡·이한호·이정현·윤현석·김한열씨

18~19일 양림동 일원 광주 95명·전국 95명 참여

최근 지역 문화계의 신선한 흐름 중 하나는 젊은 문화 기획자들의 약진이다. 아직은 어설피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와 유쾌한 기획으로 지역 문화지도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여름 ‘광주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문화도시 만들기’ 포럼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지혜를 모아왔다.

지역 청년 기획자들이 전국의 청년 기획자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꿈을 나누자며 초대장을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7일~19일까지 광주에서 개최하는 ‘2014 문화의 달’ 행사 중 ‘전국 청년문화기획자 대회-95+95 문화기획자 마을에서 꿈꾸다’(18~19일 양림동 일원·이하 기획자 대회)를 통해서다.

지난 2001년 인천에서 ‘지역문화네트워크 포럼’이 열린 이후 지역 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자 대회는 광주 지역 20~40대 문화 기획자 5명이 공동 디렉터를 맡아 준비했다. 정민룡(43·북구문화의 집 관장), 이한호(36·주소 컴퍼니 대표, 이정현(34·프리랜서 문화기획자), 윤현석(34·컬처 네트워크 대표), 김한열(29·아모티크 협동조합)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지역 준비위원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전교필서 등 선배 기획자들을 초청, 3차례 예비 포럼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행사를 준비해 왔다.

행사 주제는 ‘사람의 중심이 땅의 기운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담은 ‘인심지심(人心地心)’. 도시와 마을, 시장과 거리, 골목과 일상 공간을 기반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댄다. 광주 지역 95개 행정동을 상징하는 95명의 기획자와 전국에서 활동하는 95명의 기획자가 함께 하며 95명의 기획자는 또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또 다른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

‘문화 기획자, 땅심을 돌아다’, ‘도시 문화기획,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다’, ‘문화기획자, 아시안을 이야기하다’, ‘지금, 청년문화기획자란 누구인가’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디렉터들은 함께 할 95명의 지역 기획자를 섭외하고 행사를 준비하며 많은 의견들을 접했다. “20대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예비 기획자들이다. 관심은 많은데 아직 어떤 걸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문화적 이벤트에 20대들은 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주제가 돼서 참여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다.”(이한열)

“마을로 들어간 기획자, 마을에서 뭔가 공공이처럼 일을 도모하는 이들을 찾아내는 게 어려웠다. 기획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이정현)

“문화 기획 부문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스스로 나는 문화기획자인가, 문화기획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획자’에 대한 어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윤현석)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4 문화의 달’ 행사 중 ‘95+95 청년문화기획자 대회’를 준비중인 공동 디렉터(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방향) 이한호·윤현석·이정현·김한열씨. /나명주기자 mina@

“마을로 들어간 기획자, 마을에서 뭔가 공공이처럼 일을 도모하는 이들을 찾아내는 게 어려웠다. 기획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이정현)

“문화 기획 부문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스스로 나는 문화기획자인가, 문화기획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획자’에 대한 어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윤현석)

전국 95명의 기획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하는 네트워크북에, 지역의 95명 기획자들은 따로 지역에서 만드는 네트워크북에 실리게 된다.

디렉터들이 주목하는 것은 행사 ‘이후’ 광주의 움직임이다. 단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 기획자들이 자발적인 논의들을 이어가며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행사 후 11월 28일과 12월 28일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대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같은 것도 만들어지면 어떨까 기대해본다.”

이한호 대표는 “청년기획자들의 창조적 접근을 통해 방치된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시민의 삶도 새로운 순간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70-4239-50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도 문화기획자 문화기획여지도展’ 당선작 전시도

‘95+95청년문화기획자대회’는 문화 기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최근 ‘나도 문화기획자 문화기획여지도’ 공모전을 진행했다.

우승작으로 화동 백화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사라진 도시의 기억을 재생하는 ‘사라진 마을, 잃어버린 기억’(소나영·정재경)이 선정됐다. 그밖에 ‘21세기형 마을잔치 라면축제’(김희경) ‘광주전남 혁신도시 편 컨테이너’(박현아), ‘오

늘 저녁 시간 어때요?’(한아름)가 선정됐다. 또 지역문화기획 우수사례는 ‘광주 인디공연사진전’(정성영), ‘사계절 프로젝트 : 계절놀이터’(장유정), ‘내일을 위한 또 하나의 나눔’(민병규), ‘마을미디어 NYCAst’(손소리), ‘산수마을 양푼이 골목축제와 재미 마을공동체사업’(송혜경) 등 5팀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행사 기간 중 전시된다.

광주 문화예술 특구를 선포하다

제5회 광주예총아트페스티벌 16~18일
건축·국악·연극 등 10개 단체 프로 다채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2014 제5회 광주예총아트페스티벌’ 16~18일 3일간 광주예총 회관(옛 서구청) 일대에서 열린다.

최근 광주문화재단에서 옛 서구청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광주예총은 올 행사 주제를 ‘광주 문화예술 특구를 선포하다’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은 정순기 광주연극협회장(이벤트), 최상진 광주국악협회장(공연·영상) 한갑수 광주예총 부회장(전시)이 공동으로 맡았다.

지난해까지 광주 전변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예총은 올해는 회관이 들어선 옛 서구청

의 야외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만난다.

협회 소속 단체인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애, 영화, 음악 등 10개 단체가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6일 오후 4시30분부터 길놀이와 31사단 군악대 연주에 맞춰 300여명의 예총회원이 펼치는 예총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가 막을 올리며 광주예총회관 현판식과 개관식도 함께 갖는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국악공연과 시낭송, 뮤지컬 ‘서정 포 러브’ 등이 공연되며 가수 심수봉과 자전적 탄 풍경의 축하무대도 이어진다. 또 250명으로 구성된 광주 연합합창단

의 공연과 영화 상영도 펼쳐진다.

17일에는 장승일씨 등 10명의 음악인이 펼치는 ‘광장의 악사들’, 바이올린 독주(도진미), 시낭송, 줄타기, 대중음악 콘서트 ‘행복 충전 광주’가 펼쳐지며 마지막날에는 필리핀 아크로바틱 팀과 B-BOY 공연, 무용 ‘백설공주’, 레이저 마술쇼,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폐막식에서는 불꽃놀이와 강강술래도 펼쳐진다.

그밖에 전국 광역시와 제주도를 출신 작가들과 지역 미술인 150여명의 작품 15000여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며 전국사진촬영대회, 학생사생대회, 백일장 등도 열린다. 전통악기 전시회, 광주 문화의 역사 전시회, 연극소품



가수 심수봉

전시회 등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각 협회는 희극주막, 음악 카페, 국악 장터, 시 낭송, 문학 오두막 등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잔치도 벌인다. 문의 062-224-34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